

제2절 고성2리(古城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자연부락인 성저동(城底洞), 가원동(佳原洞), 게골동(蟹谷洞)의 3개 자연부락으로 이뤄졌으며, 성저동(城底洞)은 동쪽으로 뒷산이고, 서쪽은 호월1리인 무월동(舞月洞)과 닿아 있으며, 남쪽은 남대천 건너 가원동(佳原洞)이 있다. 그리고 북쪽은 옛 고성(古城)이 있었던 곳이다.

가원동(佳原洞)은 동쪽으로 읍내리 월변동(月邊洞)과 접하고, 서쪽은 뒷산을 넘어 신림리 지역으로 갈 수 있으며, 남쪽은 산 너머에 울진~신림간 도로가 있다. 마을의 북쪽에 성저동(城底洞)과 무월동(舞月洞)이 있다. 게골동(蟹谷洞)은 ‘마을의 형세가 게(蟹)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가원동(佳原洞)의 우측 재(嶺) 너머 울진~신림간 도로 양쪽에 10여 호가 사는 마을이다. 서쪽은 신림리 설매동(雪梅洞)도 연접하며, 남쪽은 읍남4리 오로실동(五老實洞)이 연접해 있다. 북쪽은 산 너머 호월리 용저동(龍渚洞)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가원동(佳原洞)

1592년 임진왜란 이전에 개척된 것으로 추측된다. 임진왜란 당시 왜병(倭兵)들의 울진현[蔚珍縣：古山城] 공격을 막기 위하여 마을민들이 춤을 추고 노래판을 벌여 왜군의 시선을 돌린 후, 고산성(古山城)에 주둔하고 있던 조선군이 북문(北門)을 통하여 왜군을 섬멸하였다고 전한다. 그때부터 마을을 가무원(歌舞原)이라 불러오다가 마을의 앞들이 네 계절 아름답고, 또한 마을을 감싸고 있는 범대미산과 골짜기 등 지세와 풍광이 아름다워 가원동(佳原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2) 게골동(蟹谷洞)

개척 연대(開拓年代)는 약 100년 전으로 추측되며, 풍수지리(風水地理)에 의한 게(蟹)형국의 길지(吉地)가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산성(山城)

울진현성의 유구와 흔적이 현존하며, 현재 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4) 성저동(城底洞)

1400년경에 개척되었다 전한다. 성밑(城底)이란 이름은 1396년에 울진현성(蔚珍縣城)이 마을 뒷산 분지(盆地)에 있었으므로 성(城)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것으로 성저동(城底洞)이라고도 한다.

3. 가구 분포

총 64세대가 거주하며新安 주씨(新安朱氏),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주로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고산성(古山城)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에 있는 조선 전기 산성이다. 문헌 자료를 보면, 지금의 울진읍 내에 있었던 고읍성이 왜구의 침입으로 불타버리자, 한성판윤 장순열(張巡烈)의 상소로 외적의 방어상 알맞은 고산성으로 옮겨 석축을 쌓아 성을 이루니, 주위가 2,566척이고, 높이가 9척이었다고 한다. 능허사(凌虛寺)를 관사로 개수하고 군민을 다스려 오던 중, 1528년(중종 23)에 전 경흥부사 장백손(張伯孫)이 다시 상소하여 고산성은 도로가 험난하고 성지의 경사가 심하며, 음료가 부족하여 유사시에는 장구한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1529년 현령 권박(權博)이 고읍성 옥숙동으로 다시 옮겼다. 1556년(명종 11)에 관찰사 윤인노(尹仁怒)와 현령 이언화(李彦華)가 상의하여, 방어상 고산성이 최적지라 하여, 영동 8읍 연군(煙軍)을 출역하여 다시 산성을 수축하고 옮겼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에 성이 함락되고 불타버렸다. 1621년(광해군 13)에 유림 남홍(南鴻) 등이 이곳은 지대가 좁고 식수가 부족하여 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상소하여 현령 이웅남(李雄男)이 민원(民願)이라 하여 또다시 옥숙동에 환읍하였다. 1679년(숙종 5)에 옥계동 현 군청 소재지로 다시 옮겼다. 고산성은 현존 길이가 약 1,150m이고, 망실부가 50m이며, 성안의 면적은 약 3만 평이다. 서문지 1개소와 북문지와 남문지로 추정되는 문지 2개소가 조사되었으며, 망루지 1개소, 장대 1개소, 치성 1개소가 있다.

2) 국보각(國寶閣)

국보각은 월계서원 내에 있으며, 국보 제181호인 장양수의 급제패지를 보관하고 있는 건물로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에 단청한 맞배지붕 기와집이다. 외삼문은 1칸 규모의 사주문으로 만들었으며, 내삼문은 솟을대문 형식의 3칸 크기로 단청을 하였다.

3) 도통사(道統祠)

도통사는 일제강점기에 창건된 사당으로 문공(文公) 주희(朱熹), 청계(淸溪) 주잠(朱潛), 문절(文節) 주열(朱悅)의 삼현을 배향한다. 1932년에 주자의 30세 후손인 주병렬(朱秉烈)이 중국에서 주자의 영정을 가져와 사저에 봉안하다가, 1935년에 고성리 산성동에 사당 1동과 강당을 건립, 고성묘(古城廟)라 부르다가 도통사로 개칭했다. 1994년 9월 사우·삼문·담장을 신축하고 강당을 중건했으며, 매년 음력 3월 9일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주잠은 주자의 증손자로 신안 주씨 한국 내 시조이다. 주열은 고려의 문신이며, 시호는 문절공(文節公)으로 주잠의 손자이다.

4) 마말(馬말)

가원동(佳原洞)의 북쪽에 있는 계곡으로 여섯 가구(家口)가 거주하고 있다. 울진현이 고산성(古山城)에 있을 당시 장(場)날에 ‘말을 매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5) 사직단(社稷壇)

장씨(張氏) 신도비(神道碑)가 있는 산(山) 위쪽 10m 되는 곳에 옛터만 남아있다. 옛날 성주[城主; 군수]가 주제관(主祭官)이 되어 국가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던 곳이다.

6) 성지(城地)와 장대석(將臺石)

석축(石築)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으며,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방(四方)에 장대석(將臺石)이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동장대석(東將臺石)만 남아있다. 기와를 굽던 곳이 있는데 이곳을 와곡(瓦谷)이라 한다.

7) 성황당(城隍堂)

가원동(佳原洞)과 성저동(城底洞)에 각각 성황당(城隍堂)이 있다. 가원동(佳原洞)은 노송(老松)을 성황신(城隍神)으로 모셔오다가, 1988년에 당집(堂)을 지었고, 성저동(城底洞)은 노송(老松)을 모시고 있으며, 매년 음력 정월 보름날 자시(子時)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안녕과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8) 월계서원(月溪書院)

월계서원은 울진 장씨(蔚珍張氏) 관시조인 매계(梅溪) 장말익(張末翼)과 8세손인 판서 장양수(張良守)를 배향하는 사액서원이다. 1856년(철종 7) 무월동에 월계사(月溪祠)로 창건된 후, 1862년(철종 13) 예조로부터 ‘월계(月溪)’로 사액 받았다. 1868년(고종 5) 철폐되고, 1925년에 현 위치인 울진을 가원동에 이건, 세덕사(世德祠)라 칭하다가, 3년 후 경덕사(景德祠)로 개

칭했으며, 해방 이후 월계서원으로 칭했다. 장말익은 시호가 문성공이며, 고려조 문과 급제 후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지냈으며 울진부원군(蔚珍府院君)에 봉해졌다. 장양수는 장말익의 8세손으로 1205년(희종 1) 병과(丙科)에 급제해 전리판서를 역임했다. 장양수의 과거 합격증서인 국보 181호 ‘장양수홍패(張良守紅牒)’가 현존하며, 서원 옆 국보각에 보관하고 있다.

9) 장말익(張末翼) 제단(祭壇)

울진 장씨(蔚珍張氏) 관시조(貫始祖)인 매계(梅溪) 말익(末翼) 선생의 묘(墓)를 실묘(失墓)하고, 월계서원(月溪書院) 경내(境內)에 설단(設壇)하였다.

10)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

지금의 시장(市場)을 말하는데, 당시 이곳에는 초장(初場), 중장(中場), 종장(終場)으로 3일간 장(場)이 열렸다. 초장(初場)은 성내(城內)에서, 중장(中場)은 성(城) 밑의 마을에서 열렸고, 종장(終場)은 장이 끝나는 날로 무월동(舞月洞)과 도청동(道淸洞) 사이에 있는 들에서 열렸는데, 지금도 이곳을 종장이들(終場)이라 부른다. 장이 서는 곳의 서쪽으로는 정림리(井林里)를 거쳐 두천리(斗川里) 방향인 12령(十二嶺)쪽이고, 와현동(瓦峴洞)에 객줏(客酒)집이 있었다. 북쪽에는 종장(終場)이란 주막(酒幕)거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11) 팔복산기도원(八福山祈禱院)

1984년에 가원동(佳原洞)에 건립(建立)되었다.

12) 피골(血谷)

임진왜란 때 고산성(古山城)이 왜병(倭兵)에게 함락되자 성내(城內)의 군관민(軍官民)이 모두 전사(戰死)하여 수천 명의 피가 흘러 계곡 안에 가득 찼다 하여 피골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13) 행계골(鄉校谷)

1484년(성종 15)에 읍내3리 월변동(月邊洞)에 향교(鄉校)가 건립(建立)되었고, 1697년(숙종 23)에 고성2리인 성저동(城底洞)에 이건(移建)하였다. 그 후 1873년(고종 9)에 읍내리로 옮겼는데, 향교(鄉校)가 있던 곳이라 하여 행계골(鄉校谷)이라 부른다.